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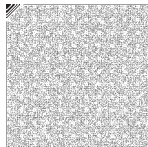
저는 서울 가톨릭 사진가회(이하 가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틀에 갇혀 있던 저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생활로 연결되면서 신앙의 일치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단체 활동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거의 4년에 걸쳐 '가사회' 회원들이 함께 추진해 온 전국 공소 사진집의 편찬 작업에서입니다.

한국의 천주교회 역사에서 공소는 다양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목자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되었던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우촌은 곧 공소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 후 18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불어 닳았던 수차례의 박해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신자들은 산골 오지로 숨어들어 공소에서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본당까지 나오기에는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서 또는 한센병 치유지들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된 집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공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옛 공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우리 '가사회'가 공소를 찾아 한국 천주교회 초기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 또 공소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국 630개에 달하는 공소를 찾아 그 역사와 현재를 알게 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힘든



정희선 카타리나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여건에서 사제도 없이 삼삼오오 모여 굳건하게 믿음을 키워 온 현장인 공소를 방문하면서 선조들의 숭고한 신앙의 발자취를 헤아려볼 수 있었고, 현재 공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이 나라 천주교회를 반석 위로 이끌어 오신 주님의 강한 손길에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진 작업의 결과를 책으로 펴내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수백 개 오지의 공소를 찾아다니는 회원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게다가 공통점이라곤 사진을 좋아하는 천주교 신자라는 것뿐. 그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른 30여 명의 회원이 커다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려다 보니 시행착오도 컸고, 의견의 충돌과 대립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의 4년에 걸친 기간,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에 대한 인내와 착한 마음과 친절함의 값진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족하나마 전국 공소 사진집의 발간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이에 계시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교리상식

### 성가가 두 배의 기도라고요?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56항) 성가는 성가대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이 함께 한마음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

